

파일리스트

파일명	날짜	장소	회의형식	회의/강연 주제	사회자/발표자/토론자/강연자	내용	언어	쪽수
1	2010. 10. 11. ~ 2010. 10. 12.	AIPS	Conference	G20 and Global Governance Reform Part I. G20 and Global Governance	Stephen Krasner (Stanford University)	International Regime으로서 G20을 분석. Regime의 힘은 권력의 근본적인 분배, 구성원간 이해관계의 상보성, 근본적인 믿음이 공유되는 정도 이 세 가지에 달려있음. G20은 첫번째 조건만을 충족하며, 두가지는 그렇지 않음. G20은 많은 불안정성-중국의 미국에 대한 도전의 불확실성, G20 국가들간 국가와 시장 역할에 대한 의견 불일치, 이해관계의 차이, 자국내 강력한 이해집단의 압력 등-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G20을 대체할 실현가능한 대안이 부재하기 때문에 G20은 "비틀거리도 아마도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음.	영어	154
					Suzuki Motoshi (Kyoto University)	Krasner의 관점에 동의함. 각 국가가 중상주의 정책을 취하는 어려운 시기에 G20이 어떻게 이질적인 멤버십을 통치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함. G20이 글로벌 통치의 성공적인 주창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 실패와 중상주의 정책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균형 성장, 안정 및 환경 보호를 실행할 수 있는 네오클래식한 자유정책을 추구해야 함.		
					Zhang Yanbing (Tsinghua University)	G20이 글로벌 통치의 효과적 메커니즘이 되는 데에는 세 가지 장애물(주요 권력들의 태도, G20과 기존 국제조직과의 관계, 아젠다 셋팅과 시기적절한 결정 등과 같은 효과적 전시 능력)에 직면해 있음. G20이 진정한 글로벌 경제통치조직체가 되기 위해서는 주요 국제기구들을 통솔 하에 둘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되어야 함. G20은 포괄적인 고유의 아젠다를 설정해야 하며, 주요 구성원 국가간의 합의를 찾아야 함. G20은 2-3년 내에 더욱 성공적일 것임.		

파일명	날짜	장소	회의형식	회의/강연 주제	사회자/발표자/토론자/강연자	내용	언어	쪽수
					Sohn Yul (Yonsei University)	G20의 대안 기관들은 G20과 동일하거나 혹은 더한 제한을 갖고 있음. 기존의 기능적으로 나누어진 통치 기구인 IMF는 금융위기와 같은 이슈를 다루는 데 무능함을 보였음. G20은 네트워크로서 하나의 위기 단체가 아니라 건설적인 위원회임. G20이 긴급하고 얽혀있는 이슈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더욱 유연하고 네트워크화 되어야 함.		
					Mo Jongryn (Yonsei University)	G20이 세계경제를 위한 입법기관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봄.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은 법제정과 감독으로, G20은 두 가지의 역할을 분명하게 이행하고 있음. 글로벌 통치체계의 법제적 기구로서 G20을 받아들일 때, G20의 다른 국제적 기관과의 관계에 두 가지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임-G7은 산업민주주의 시대 뜻 맞는 리더들의 이익집단이라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며, G20은 국제금융기구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Part II. G20-IMF Relations	Kenneth Dam (University of Chicago)	G20은 전문가와 재정자원의 부재로 인해 IMF와 같은 현존 국제기구의 대안체가 될 수 없으며 단지 포럼일 뿐임. G20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 개별 국가의 경제정책을 조율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능해 왔고, 지금은 국제경제기구를 개혁하는 일을 위임받아야만 함. IMF 개혁의 주도권은 투표권을 보유한 유럽에 달려있는데, 유럽이 의석을 내놓아야 신흥 경제국에 권력 할당이 가능함.		
					Huang Ying (China Institute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현재 IMF 개혁은 중요한 단계에 있지만 국제경제의 중심으로서 IMF를 회복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G20은 IMF의 관리를 현대화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것이지만, IMF 개혁에 대한 G20의 능력은 의문임. G20의 리더들에게 IMF와의 관계는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리더들은 상충하는 아젠다를 가지고 있고 협력방안을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임.		

파일명	날짜	장소	회의형식	회의/강연 주제	사회자/발표자/토론자/강연자	내용	언어	쪽수
					Histake Masato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Japan, and Cambridge University)	Dam의 관점에 동의함. G20은 단지 포럼이며, 효과적 조치를 시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그러나 G20은 건설적인 논의를 위한 장을 창조할 수 있음. G20에 국제기구를 개혁하는 업무의 임명은 현명한 움직임.		
					Kim Joongi (Yonsei University)	G20이 IMF와 같은 현존하는 국제기구의 대안체가 될 수 없다는 데 동의. 그러나 G20은 국제금융제도의 개혁을 방해해 온 정체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IMF는 이슈 공유와 의석 문제 이외에 더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데, 특히 IMF가 모범적인 대표기구로서 기능하지 않는다는 데에 신흥발전국가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 이러한 IMF의 통치 개혁에 있어 G20이 잠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Part III. Domestic Political Influences on the G20	David Brady (Hoover Institution)	세계안보와 자유무역협정의 문제를 다루는 미국 정치를 비교함. 의회는 전쟁과 같은 외교정책의 경우 대통령에게 결정을 넘김으로써 불확실한 상황에서 안전한 선택을 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무역정책의 경우 실제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들의 선거구를 더욱 더 대변할 수 있기 위해 노력함. 의회는 G20이 통화와 다른 경제 정책을 조율하여 세계 경제의 위기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선진산업국과 신흥발전국 리더들의 공개포럼의 장을 제공하는 중요성을 알고 있음. 의회는 거대경제와 금융적 협력의 복잡성으로 인해 대통령의 결정을 따라왔지만, G20의 행동이 선거구의 경제적 이해를 위협한다면 태도를 바꿀 것임.		

파일명	날짜	장소	회의형식	회의/강연 주제	사회자/발표자/토론자/강연자	내용	언어	쪽수
					Iida Keisuke (University of Tokyo)	일본의 G20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설명함. 일본은 G8에 소속된 유일한 아시아 국가로서의 자부심이 있었지만, G20에서는 다섯번째 혹은 여섯번째 아시아 국가 중 하나로 희소가치를 상실함. G20에 대한 많은 정책들-특히 재정정책은 각국의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려움. 국제적 협력과 국내정책이 상충한다면, 국내정책이 국제협정을 언제나 우선함.		
					Natalia Soebagio (Univesitas Indonesia)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국회는 G20 쟁점에 대해서는 관심이 미비함. G20이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활발하게 담론이 논의될 수 있도록 G20에 대한 대중 인식을 조성하는 계기가 있어야 함. G20을 위한 국내지원을 위해 필요한 것은 쟁점을 현지화하는 것임.		
				Part IV. The G20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limate Control	Young Soogil (Chairman,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Republic of Korea)	G20이 기후통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구가 될 수 있을지 평가함. 기후통제를 위한 세 가지 주요한 회담이 있는데, G20 정상회담은 UNFCCC 과정을 시행하는 데 보조역할을 수행할 것이 틀림없음. 서울 G20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를 논의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최선은 다음 모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데 합의하는 것임. G20은 기후문제 합의에 도달하여 비구성원 국가들에 사례를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Chung Suh-Yong (Korea University)	UNFCCC는 기후변화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선진국과 신흥발전국이 겨루는 양상이어서 적합하지 않음. 2009년 코펜하겐협정은 비법률적 합의와 정치적으로 관대한 장치만을 생산하여 IPCC가 추천하는 목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함. 이러한 맥락에서, G20은 선진국과 신흥발전국가 양쪽 모두에게 매우 매력적인 포럼이 될 수 있음. G20은 공식화된 협상틀에 의한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정상회담으로서 강력한 정치적 모멘텀을 움직일 수 있음.		

파일명	날짜	장소	회의형식	회의/강연 주제	사회자/발표자/토론자/강연자	내용	언어	쪽수
				Part V. Going Forward and East Asia's G20 Leadership	Thierry Soret (UNDP)	G20은 기후변화와 같은 경계를 넘어서는 쟁점을 다루는 데 있어 신속한 공동의 대응을 취하게 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음. UN은 신흥발전국가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데 우선적이며, 대규모 배출국으로 하여금 신흥발전국가의 적응 과정에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압력을 가함.		
					Mo Jongryn (Yonsei University) Eunkyung Seo (Yonsei University)	G20이 발전하는 데 있어 한국의 역할을 설명함. 한국은 특히 선진국과 신흥발전국 양쪽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이해관계의 영역에서의 가교역할로 주목받아 왔음. 이에 따라 G20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금융안전망과 발전의 쟁점을 회담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함. 한국은 글로벌공동체 내에서 리더십을 구축하는 데 있어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음. 한국 정부와 개별 분야 전문가들은 세계협상테이블에서 더 활발한 역할을 맡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장기간의 투자가 요구됨. 한국은 G20을 제도화하려는 노력의 일부로서 G20이 글로벌 통치의 감시단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함.		
					Kim Chiwook (Sejong Institute) Mo Jongryn (Yonsei University)	G20 동아시아 4개국(일본, 중국, 한국, 인도네시아)의 협동적 리더십 증강을 위한 도전에 대해 논의. 이들 G20 동아시아 4개국은 국제무대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구별되는 집단이 전혀 아니며, G20에서도 아젠다를 이끌어 오지 못함. 동아시아 국가의 리더들은 국가적 야망을 뒤로하고, 그들의 권력으로 협동을 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함. 동아시아권 국가들이 세계 나머지 권역 국가들에게 매력적일만한 새로운 대안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글로벌 통치에서 동아시아권 국가의 참여 효과는 작아질 것임. 동아시아 국가가 글로벌 통치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강력한 지역적 협조와 실행 메카니즘을 요구하는 지역적 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파일명	날짜	장소	회의형식	회의/강연 주제	사회자/발표자/토론자/강연자	내용	언어	쪽수
2	2010. 11. 10.	AIPS	Roundtable	G20 서울 정상회의: 전망 과 향후 과제	최원기 (외교안보연구원)	<p>기존 1-4차 G20 정상회의는 국제공조를 통한 실질적인 위기극복 방안의 도출, 새로운 선진-신흥국간 협력, 국제경제협력의 최상위 포럼 이라는 성과를 얻음. 그러나 G20이 글로벌 협력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위기 이후 협력동력의 창출, 금융경제 이슈를 넘어서는 문제해결 능력, G20 협력체제의 정체성 및 대표성/정당성의 제고, G20의 제도적 기반의 강화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함.</p> <p>G20 서울 정상회의 주요 의제와 이슈는 글로벌 금융안정, 금융규제, IFI 개혁, 개발의제, 무역 등임.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주도적 리더십의 발휘, 회의운영체제의 구성, 행동지향적 합의 도출 추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글로벌 거버넌스 외교역량의 강화, G20을 활용한 외교적 외연확대 활동의 체계화, 개발의제의 국가 브랜드</p>	한국어	12
3	2010. 11. 15.	AIPS	Roundtable	여성이민자정책	<p>사회자: 우정엽 (AIPS)</p> <p>발표자: 김민정 (서울시립대학교)</p>	프랑스의 이민자 동화정책의 실패로 사회에 편입되지 못하고 여성으로서의 부담까지 안고있는 프랑스 여성 이민자들에 대해 설명함.	한국어	20
					<p>발표자: 김성진 (덕성여자대학교)</p>	러시아의 귀환이주와 대체이주의 이주정책을 분석함. 인권침해의 문제와 이주여성정책에서 방치되기 쉬운 성산업 종사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		
					<p>발표자: 문경희 (창원대학교)</p>	여성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잘 구현된 스칸디나비아 국가조차도 여성이민자정책이 사회통합 및 안보와 관련하여 미비한 점이 있음을 지적.		
					<p>발표자: 이지영 (한양대학교)</p>	일본의 여성이주정책은 여성이주자가 노동자로 인식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정책이 수립되지 못함.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원조가 여성 개인이 아닌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지적함.		

파일명	날짜	장소	회의형식	회의/강연 주제	사회자/발표자/토론자/강연자	내용	언어	쪽수
4	2010. 12. 15.	Westin Chosun Seoul	Roundtable	North Korea's Provocations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Moderator: Hahm Chaibong (AIPS) Victor Cha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Thomas Christensen (Princeton University), Gordon Flake (Mansfield Foundation), Scott Snyder (Asia Found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최근 도발 행태(천안함 사태, 고농축 우라늄 시설 공개, 연평도 사건)를 보는 시각 - 북한 핵시설: 북한 핵시설과 그 심각성에 대한 의견, 북한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의미 및 대처방안, 6자회담의 전망과 전제조건 - 북한의 경제와 정치적 상황의 안전성 - 북한의 저(低)강도 도발 증가 가능성에 대한 대처방안 - 3자협력(한국, 미국, 일본)에 대한 의견, 중국의 역할 및 영향력 	영어, 한국어	28
5	2011. 1. 13.	AIPS	Symposium	G20 정상회의 이후 한국 글로벌 리더십 과제 - G20 성공 요인과 한국 다자외교 리더십	모종린 (연세대학교)	한국은 G20 의장국으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음.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해야함. 다자외교 분야에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의 위치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전략선택, 선택과 집중, 국내역량강화 등 글로벌 리더십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	한국어	48
				- 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한국의 G20 외교 추진 방향	최원기 (외교안보연구원)	<p>G20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성과는 G20의 협력 모멘텀 강화, IMF 개혁 등 글로벌 거버넌스 프로세스에의 본격적 참여, 개도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리더로서의 한국 이미지 구축 등을 들 수 있음.</p> <p>G20이 국제협력체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G20 협력동력의 창출, 비회원국의 참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메커니즘의 구축, 금융·경제를 넘어선 의제의 확대, G8 및 다른 협의체와의 관계 설정, UN 및 IFIs 등 기존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 구축, 사무국 설치 및 운영방식 개선 등 제도화의 문제의 과제를 해결해야 함.</p> <p>앞으로 한국은 다자외교체계를 구축하고 G20 글로벌 거버넌스 외교의 목표와 추진 방향을 설정해야 함.</p>		

파일명	날짜	장소	회의형식	회의/강연 주제	사회자/발표자/토론자/강연자	내용	언어	쪽수
				- 비확산 외교와 한국의 국제 리더십	이상현 (세종연구소)	한국은 북핵문제로 인해 비확산의 취약지대로 인식되고 있음. 따라서 한국은 한반도에서 비확산 리더십을 발휘해 비확산 준수 평판을 높여야 함. 6자회담과 핵안보 정상회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비확산 외교를 수행하여야 함.		
				- 국제환경협력과 한국의 역할	정서용 (고려대학교)	지금까지 한국은 글로벌 환경 아젠다와 관련하여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함. 앞으로 한국은 아젠다의 설정,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역할, 글로벌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에의 주도적 참여 등을 통해 글로벌 환경협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함. 이를 위해 한국은 환경분야에의 관심,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적극적 활용, 동북아 환경협력에서의 주도적 역할, 정부 조직 및 민관 파트너십의 강화 등을 통해 노력해야 함.		
6	2011. 1. 17.	AIPS	Breakfast Meeting	Recent U.S. Congressional Elections and Implications for ROK-U.S. Relations	Edwin Feulner (Heritage Foundation)	2010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함. 이번 선거에서의 핵심은 외교정책이 아닌 국내경제였음. 공화당의 승리로 한미FTA는 미의회에서 파나마와 콜롬비아와의 FTA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심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함.	영어	20
7	2011. 4. 19.	AIPS	Breakfast Meeting	Analysis on Defense Reform Plan 307 of Korea	Bruce Bennett (RAND Corporation), Taewoo Kim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국방개혁(특히 국방개혁플랜 307)에 대해 논의 - 북한과 비교한 한국의 군비현황과 연합 -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 - 개혁 방안(앞으로 나아갈 방향, 국방개혁의 내부응집력 및 지원과 군사적 요소, 군인 수, 현 정부 임기 내 개혁 추진의 가능성, 개혁의 미진한 점 등) - OPCON 이전: 군사개혁과 OPCON, 이전 시기 - 국방예산의 문제, 국민 합의의 방안	영어	16
8	2011. 4. 19.	AIPS	Roundtable	Analysis on Defense Reform Plan 307 of Korea	Bruce Bennett (RAND Corporation)	2011년 국방개혁플랜을 논하기 전, 2005년을 시작으로 2007년 2009년 개정된 국방개혁플랜의 필요조건 및 개혁플랜 간의 비교(미래 기회, 도전, 예산 등)	영어	15

파일명	날짜	장소	회의형식	회의/강연 주제	사회자/발표자/토론자/강연자	내용	언어	쪽수
9	2011. 5. 19. ~ 2011. 5. 20.	AIPS	Roundtable	China's Foreign Policy: Who Makes It and How Is It Made	Gilbert Rozman (Princeton University)	<p>중국의 외교정책 제정에 대해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하반기부터 18개월간의 외교정책이 지난 30년간의 중국 외교정책과 상반된 이유 - 국가안보위원회를 설립하지 않는 이유 - 정책평가(통화 및 재정 정책, 다변외교, 국제제도 등) - 중국의 대한 외교정책 - 중국 출판물에서 발견되는 변화하는 내러티브가 향후 외교정책의 방향을 제공하는 정도 -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 중국의 다자주의 	영어	6